12월의 편지

푸르른지역아동센터 뉴스레터

2023년 12월호

세부 내용

“우리한테 주주님들이 계시잖아!”

12월 특집호

미리보는 01월

“우리한테 주주님들이 계시잖아!”

23년을 떠나보내면서 아이들에게 24년에 진행할 센터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센터를 이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6학년 친구가 “아니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니 한분과 형 이렇게 생활하는 아이는 이미 뭔가를 할 때 돈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제가 대답을 하려는 그 순간 옆에 있던 6학년 아이 한명이 대답을 가로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걱정하지마. 우리한테 주주님들이 계시잖아! 그렇죠? 목사님” 초1학년 때부터 센터를 이용한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혼자서 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걸. 사실은 모두가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걸.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는 올해 말에 센터 근처에서 좀 먼 곳으로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는지라 어쩌면 센터를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 센터를 다닐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호자간담회에 오신 어머니께서 “00이가 무조건 센터를 가야 한다고 해서. 이사간 곳이 멀지만 데리러 오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멀어도, 힘들어도 센터를 다니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아이가 친구에게 해 준 답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푸르른지역아동센터&꿈쟁이주식회사는 저 홀로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 따뜻하고 놀라운 사실을 선생님들, 아이들, 심지어 보호자 모두 다 알고 있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이 함께 달려주시기에 아이들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로’라는 아픈 단어에서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23년도 함께 달려주시고, 24년도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 손 잡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12월 특집호

푸르른지역아동센터
보호자 간담회

미리보는 01월

12월은 늘상 슬픔이 존재하는 달입니다. 고3이 되는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년 전부터 매년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10년을 넘게 이용한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나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에는 제가 10월 중순부터 아프면서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 그 아쉬움이 더 큰 해였습니다. 그래도 연말 따뜻한 분들이 소중한 선물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4년 1월부터는 푸르른지역아동센터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빈 자리에 초등학생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24년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악기와 하브루타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중고생들은 진로탐색과 진학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학에 중점을 두는 아이들은 기존 그대로 학습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과 제과제빵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는 직접 커피와 제과제빵을 통해 이웃들에게 다가가 보는 준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1월 중에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겨울캠프를 가질 예정입니다. 초등 저학년 이기간 경주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꿈을방송하다'팀들은 겨울방학 미션으로 지역업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체 외에도 비영리기관을 홍보하는 것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해서 새로운 성취감을 맛보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의 자리매김을 시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시 '꿈을방송하다' 콘텐츠를 정비해서 다가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야간보호 아동들은 24년부터 볼링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아이들의 욕구에 맞춰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잘 돕겠습니다.

꿈을방송하다 -

12월의 목저씨(목사+아저씨) 이야기

우리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께!

23년 12월 31일이 되면 고3 아이들 3명이 종결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센터를 이용한 아이들입니다. 또한 24년 2월말이 되면 중3 아이들 5명이 종결을 합니다. 중3 아이들은 고등학교가 비평준화인 경주에서 다들 뛰어난 성적으로 인문계 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득 센터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28일 2차 송년회 겸 송별회 때(중3 아이들은 2월달에) 고3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거야. 아마 너희들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거다. 그때마다 환경이나 상황들을 자신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택을 해라. 그리고 버겁고 힘들 때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여기 와라. 내가, 선생님들이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게! 그러니 언제든지 와도 된다. 우리가 늘 '울타리', '비빌언덕'을 말해 왔듯이. 너희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아직도 센터에 오듯이 너희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 잊지마라.
무엇보다 늘 함께 해 줘서. 지금까지 같이 와줘서 고맙다. 너희들로 인해 행복했다. 다시 한번 고맙다."
눈물이 따라 흘러가면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이 인사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경북 경주시 동천로39번길2
3층. 푸르른지역아동센터
(054)774-4453

푸르른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아 아이들을 섬기고자 합니다.